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서로의 짐을 저주는 마음으로

- 갈 6:2 -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 후 3주】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찬양: 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 경배의 찬송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치유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시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래 참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찬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43:18,19a 인도자
- ▲ 교 독 문 51. 시편 118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안홍숙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함께
- ▲ 성경봉독 느 9:27~31 1부:인도자/2부:김현주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I. 주의 기도	마중물 찬양대
	II. 찬만	청과 찬양대
말 씬	넘치는 사랑	김기석 목사
거둠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p>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오래 참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타이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 편에 서십시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십시오.</p> <p>다 함 께 : 아멘.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결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p>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형욱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형욱	김영호	조항미	이범석

현금 계좌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십일조/월정현금) 십일조/월정/주일, 기타
	새마을금고 9002-2033-2892-7 (감사현금) 감사/생일감사/추수감사/OO감사
	새마을금고 9002-1358-4805-8 (장학금) 청과장학회, 교회 교육
	새마을금고 9002-2030-8023-7 (선교현금) 선교, 교회 파송·개척
	새마을금고 9002-2032-2714-0 (구제/녹색꿈현금) 구제/긴급구호/녹색꿈/00지원

